

☎ 홈 > 뉴스 > 사람과 일상 > 행사

"법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화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법무부 정읍 법사랑위원회,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

[0호] 2016년 11월 21일 (월) 19:21:01

박기수 기자 ✉ pgs3600@sjbnews.com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정읍지역연합회(정태호 회장)에서 공동주최, 주관하여 찾아가는 법사랑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주축되어 결성된 법사랑동아리는 전국 최초로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로 편성되어 '제1회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시상식을 하였다고 19일날 밝혔다.

팀당 참가인원은 10~12명 참여하고 경연시간은 총30분(제한시간 초과 1분당 1점 감점), 심사위원 질의,응답 10분 별도로 진행하였다.

1부, 정읍여자고등학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와 서영여자고등학교 '억울한 판사'

2부, 배영고등학교 '어긋난 모정'과 호남고등학교 '억울한 검사'

3부, 부안여자고등학교 '죽은아이는 말이 없다'와 백산고등학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의 대본을 준비한 순으로 이루어졌다.

본 행사 격려를 위해 정태호 정읍지역연합회장, 임은택 정읍지구협의회장, 은희준 부안지구협의회장, 강길원 정읍지역 운영실장, 송희복 부안지구 운영처장, 김상민 정읍지구 운영처장을 비롯한 내빈 및 학생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우수상 부안여자고등학교, 우수상 서영여자고등학교, 우수상 백산고등학교, 장려상 정읍여자고등학교, 배영고등학교, 호남고등학교가 시상되었다. 지도교사상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여자고등학교 노형섭 선생님이 수상의 영광을 받게 되었다.

심사위원장은 김영현 지청장 중심으로 검사 장태형, 검사 이주현, 검사 한승훈, 정태호 법사랑위원회 정읍지역연합회장 5명이 심사위원 점수 중 최상, 최하 점수 제외 후 3명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로 선정하였다.

김영현 지청장은 시상식 심사총평에서 "지역사회 미래의 꿈나무인 법사랑동아리 회원들이 형사 모의재판을 경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당한 법 적용과 논리적 접근방법을 상당 수준 이해를 구한 것 같다."고 칭찬하면서 "적절한 증거제시 및 증인신문 그리고 최후진술에서 상대방 주장의 결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논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보였다."면서 "참석한 학생들을 위한 점심식사와 부상을 준비했으니 오늘 뜻있는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자아실현 하도록 노력"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정태호 정읍지구협의회회장은 격려 말씀을 통해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통해 법을 알고 법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잘 성장하길 기대하며 준법정신을 키워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찾아가는 법사랑 동아리는 년중 사업으로 제주도 2박3일 캠프, 모의재판 경진대회, 복지시설 봉사활동,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및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 등 많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용철 보호복지위원장 주관으로 이번달 26일 토요일에는 고부자애원 원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정읍=박기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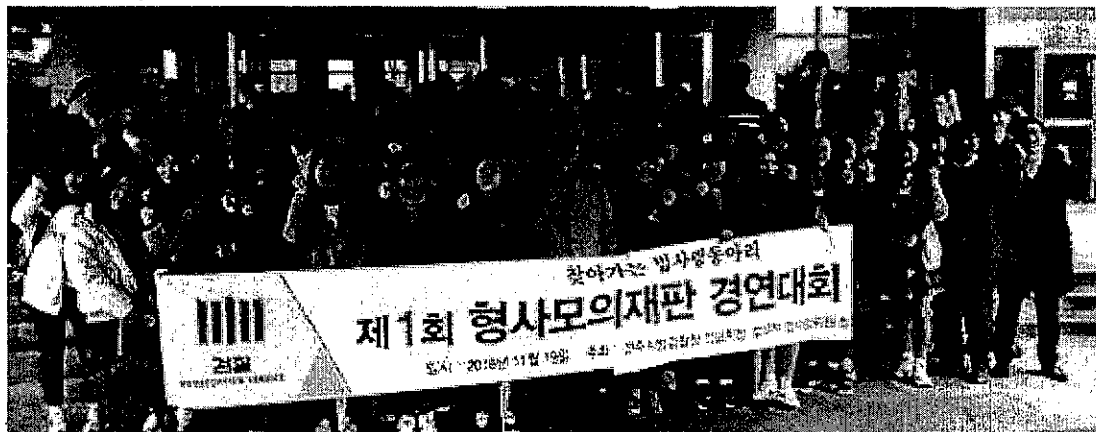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홈 > 뉴스 > 지역 > 정읍

전주지검 정읍지청-법사랑위원 '형사 모의재판 경연'

2016년 11월 22일 (화)

임장훈 ☒ hoonyoui@jjan.kr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지역연합회가 주최한 제1회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김영현 지청장)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지역연합회(정태호 회장)가 주최한 '제1회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정태호 정읍지역연합회장, 임은택 정읍지구협의회장, 은희준 부안지구협의회장, 강길원 정읍지역 운영실장, 송희복 부안지구 운영처장, 김상민 정읍지구 운영처장 및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고등학교 1,2학년이 주축되어 결성된 찾아가는 법사랑동아리 회원 30여명을 대상으로 팀별 경연과 심사위원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또한 김영현 지청장을 심사위원장으로 장태형, 이주현, 한승훈 검사와 정태호 정읍지역연합회 장등 5명이 심사위원으로 나서 경연을 지도했다.

경연은 1부, 정읍여자고등학교 '죽이지는 않았습시다'와 서영여자고등학교 '억울한 판사' 2부, 배영고등학교 '어긋난 모정'과 호남고등학교 '억울한 검사' 3부, 부안여자고등학교 '죽은아이는 말이 없다'와 백산고등학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순서로 이어졌다. 경연 결과 △최우수상 부안여고 △우수상 서영여고 △우수상 백산고 △장려상 정읍여고, 배영고, 호남고가 각각 선정됐으며 △지도교사상은 부안여고 노형섭 교사가 수상했다.

© 전북일보(<http://www.jjan.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홈 > 뉴스 > 지역 > 정읍

정읍지청, 제1회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2016년 11월 21일 (월) 12:02:35

하재훈 ☞ secon2000@hanmail.net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정읍지역연합회에서 공동주최, 주관한 '제1회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찾아가는 법사랑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읍지청에서 개최됐다.

법사랑 정읍지역연합회는 지난 19일 가진 '제1회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으로 결성돼 전국최초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로 편성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1회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팀당 참가인원은 10~12명 참여해 경연시간은 총30분(제한시간 초과 1분당 1점 감점), 심사위원 질의,응답 10분 별도로 진행했다.

1부 정읍여자고등학교 '죽이지는 않았습시다' 와 서영여자고등학교 '억울한 판사', 2부 배영고등학교 '어긋난 모종'과 호남고등학교 '억울한 검사', 3부 부안여자고등학교 '죽은아이는 말이 없다'와 백산고등학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 형사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도 가졌다.

최우수상 부안여자고등학교, 우수상 서영여자고등학교, 우수상 백산고등학교, 장려상 정읍여자고등학교, 배영고등학교, 호남고등학교가 수상했다.

지도교사상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안여자고등학교 노형섭 교사가 수상의 영광을 받았다.

심사위원장은 김영현 지청장 중심으로 검사 장대형, 검사 이주현, 검사 한승훈, 정태호 법사랑위원 정읍지역연합회장 5명이 심사위원 점수 중 최상, 최하 점수 제의 후 3명 점수 합산해 고득점 순위로 선정했다.

김 지청장은 "지역사회 미래의 꿈나무인 법사랑동아리 회원들이 형사 모의재판을 경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당한 법 적용과 논리적 접근방법을 상당 수준 이해를 구한 것 같다"며 "적절한 증거제시 및 증인신문, 최후진술에서 상대방 주장의 결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논리를 부각시키기 위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보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인생책하기** ☐ **창달기**
 www.kyobobook.co.kr